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인플레이션 우려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

□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가 0.25%p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.

- 20일 한은은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유동성이 지난해 11월 1,982조원으로 7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함.
 - 이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국내 유동성이 증가했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급증한데 기인함.
- 또한 한은은 20일 ‘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 대응’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표명함.
 - 신흥시장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.
 - 신흥시장국들은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한 신흥시장국 대부분은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고 소개함.
 - 우리나라도 지난 13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.

□ 한은은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향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출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.

- 이러한 입장 표명은 물가안정을 성장보다 우선 순위에 놓음으로써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향후 빠른 시일 내의 금리인상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.
- 또한 최근 국내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통화량 흡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.

(연일 인플레이션 경고 목소리 등, 연합뉴스 등, 1/20)